

인류세 시대 속 챗지피티(ChatGPT)와 설교 윤리*

김희준 (송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챗지피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1. 챗지피티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 2. 챗지피티의 특징
 - 3. 윤리적 쟁점사안들
- III. 설교에 대한 챗지피티의 활용
 - 1. 설교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
- IV. 신학적 설교
 - 1. 보편적 대안
 - 2. 신학과 언어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11>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037173). 또한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한국여성신학회/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3년 공동학술대회(2023.11.25.) “인공과 자연 사이에 선 인간: 포스트휴먼시대, 기독교사회윤리의 재구성”에서 “ChatGPT 시대의 설교윤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연구지원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논문임을 밝힌다.

• ABSTRACT •

ChatGPT and Preaching Ethics in the Anthropocene Era

Senior Researcher, Kim, Heejun (Institute of Humanities,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thical considerations of the use of AI like ChatGPT in sermon preparation and delivery in the Anthropocene era.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how ChatGPT works,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and the potential ethical issues that arise when preachers utilize such digital tools. Key concerns include the risk of plagiarism, loss of authenticity, theological inaccuracies, and over-dependence on technology at the expense of spiritual preparation. While acknowledging that AI tools can be a useful aid, this article argues that faithful preaching requires human elements that AI cannot replicate - namely, wrestling with Scripture through prayer, engaging with the specific context of a congregation, and employing nuanced theological languag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a model of “theological preaching” based on the work of Stanley Hauerwas, which emphasizes Christ-centered biblical interpretation and narrative rooted in the life of the church. This study concludes that while ChatGPT presents challenges for preachers, it cannot replace the spiritual discernment,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theological acumen required for meaningful sermon preparation and delivery. Preachers are encouraged to approach AI tools judiciously while prioritizing their unique role as interpreters of Scripture for their specific local communities.

Key words: ChatGPT, AI, Anthropocene, Preaching Ethics, Stanley Hauerwas

I. 들어가는 말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¹⁾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기술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인류는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인류세(Anthropocene)²⁾라 불리는,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규모의 변화를 가하는 이전에 없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인류세 시대는 인간의 삶이 기술 발전과 지구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주도하는 시기이자 이 변화의 중심에는 지구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로 매개 및 관리하는 거대한 테크노스피어(Technosphere)와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있음을 함의한다.³⁾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의 흐름 가운데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등장 및 발전은 인류세 시대속 생태계와 기술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새로운 질문과 과제를 쏟아내고 있다.⁴⁾ 챗지피티(ChatGPT)와

1) Plato. *Cratylus*, 401d-402a. <https://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1999.01.0172%3Atext%3DCrat.%3Apage%3D401>.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3일.

2) 최평순 외, 『인류세: 인간의 시대』 (서울: 해나무, 2020), 16-21, 26-29. 미국의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Eugene Storer)가 1980년대 처음 사용했지만, 이후 네덜란드의 대기 화학자인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약 1만 2천여 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세(Holocene) 시대 이후를 지칭하는 새로운 지질시대 명칭으로써, 인간이 지질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 전반에 “거대 가속”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François Jarrige and Thomas Le Roux, *Une histoire des pollutions à l'ère industrielle*, trans. Janice Egan and Michael Egan (Massachusetts: MIT Press, 2020), 조미현 역, 『지구 오염의 역사: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 (서울: 에코리브르, 2021), 325.

3) 우석영, “인류세의 비인간 돌봄”, 우석영 편, 『기후 돌봄: 거친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가는 법』 (서울: 산현글방, 2024), 122-125. 테크노스피어는 모든 기술적 인공물과 그것이 이루는 상호연결망을 포함하여, 지구 생태계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체계를 뜻한다.

4) 대형언어모델(또는 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은 기존의 전통적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정보 검색, 문장 생성, 주제 구상 등을 포함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창의적 활동의 다양한 단계를 빠르게 지원 하면서 실제적이며 영향력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와 지식과 이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될 위험, 그리고 기술 형성에 내포된 가치와 신념이 인간 사회와 여러 비인간 공동체의 미래를 형성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지 신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설교자의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 과정에서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설교가 지닌 본래의

직렬식 순차적 규칙 기반 과정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병렬식 동시적 자기-주의(self-attention) 방식의 트랜스포머 모델(Transformer model) 기반의 인공지능신경망(neural network) 구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피티(GPT) 계열 등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기에 속한다. 대형언어모델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ennifer Mugleston, Vuong Hung Truong, Cindy Kuang, Lungile Sibiyi, and Jihwan Myung, "Epistemology in the Age of Large Language Models," *Knowledge* (2025, 5, 3): 1-19, <https://doi.org/10.3390/knowledge5010003>; 이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설명은 다음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장요한, "인공지능, 결코 하나님 부르신 설교자 대체할 수 없다 - 박현신 교수,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6회 정기학술대회서 발제",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5353?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0일. 인류세와 인공지능의 다양한 연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oana Varon et al., *AI Commons: Nourishing Alternatives to Big Tech Monoculture*, (Rio de Janeiro: Coding Rights, 2024), <https://codingrights.org/docs/AICommons.pdf>; Joana Varon, Sasha Costanza-Chock, and Timnit Gebru, "Fostering a Federated AI Commons Ecosystem," *Coding Rights*, last modified July 10, 2025, https://codingrights.org/docs/Federated_AI_Commons_ecosystem_T20Policybriefing.pdf.

5) 김진영, "목회자 79% '설교 준비에 챗GPT 사용될 것'",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3962?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신학적 성찰과 공동체적 소통이라는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챗지피티를 설교와 목회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챗지피티를 설교 영역에 사용할 수 있지만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⁶⁾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 주체의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⁷⁾ 동시에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개인의 도덕성, 다시 말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투명성 및 영성 등으로 그 중요한 논의들이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⁸⁾

이 글은 챗지피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도구가 설교의 장에서 사용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학적 오류, 공동체의 정체성 약화,

-
- 6)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146~196; 황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설교 윤리와 활용에 대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검토,”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76~105;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2023), 233~257. 박현빈은, 챗지피티를 포함한 챗봇의 설교 작성 기능이 주로 ‘이야기’ 또는 ‘주제’ 중심의 설교 등에 있어서는 브레인스토밍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 반면, 강해설교에서는 오히려 아직까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져 온다고 본다. 황빈 또한 챗지피티가 자주 ‘환각현상(hallucination)’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의 사용은,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임을 강조한다. 또한 신학교육도 인공지능 사용에 발 맞추어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김동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분별하는 한국교회의 실천적 방안,” 『신학과 실천』 69(2020), 743-774. 이승우 또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사용자인 목회자의 인격에 주목한다. 그 인격은 영성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설교자인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설교 본문 말씀과의 씨름이라 해석한다.
- 7) 조용훈, “4차산업혁명기 윤리적 책임과 특성에 관한 기독교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45~80.
- 8) 김동환, “AI vs 목회자 : AI가 가져올 목회의 변화와 대응 전략 [AI시대, 교회의 역할과 가능성],” 최종접속일 2024년 6월 30일, 24:15~19, 37:05~06, https://youtu.be/_ZB2WqXzkjk?si=W8NeMAZyu6_KXwnW.

설교자의 윤리적 책임과 같은 문제들을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기술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에 있어 신학적 분별과 공동체적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안으로써 신학적 성경 해석 및 설교를 제안하며 그 예로써 스탠리 하우어위스의 설교를 간단히 살펴본다.

II. 챗지피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챗지피티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챗지피티는 대형언어모델이라는 인공지능신경망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챗지피티의 작동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훈련 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그리고 대화 생성이다.⁹⁾ 첫 번째 단계인 훈련 데이터 수집에서는 모델의 학습을 위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사용된다. 이 데이터는 주로 저작권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자료, 서적, 뉴스 기사, 블로그 등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에서 추출되며, 다양한 언어 사용 사례를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인 모델 훈련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문장의 구조, 문법, 단어 간의 관계, 의미 등을 통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 언어의 패턴을 이해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학습을 마친 인공지능은 다양한 주제에

9) Mugleston et al., "Epistemology in the Age of Large Language Models," 3-4; Andrea Filippo Ferraris, Davide Audrito, Luigi Di Cargo, and Cristina Poncibo, "The Architecture of Language: Understanding the Mechanics Behind LLMs," *Cambridge Forum on AI: Law and Governance* 1(2025): 1-19.

대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대화 생성이다. 사용자가 챗지피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모델은 이를 분석하고 문맥에 어울린다고 스스로 학습한 적절한 응답을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이 과정은 모델이 이전에 훈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입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텍스트를 예측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학습한 언어적 패턴, 즉 음절, 단어, 어구, 문장 등의 확률적 분포를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결과, 챗지피티가 생성하는 언어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언어와 매우 유사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 기반은 통계적 연산에 불과하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람과 흡사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¹⁰⁾

2. 챗지피티의 특징

챗지피티의 여러 특징을 나열하자면 수 없이 많겠지만 지면과 주제의 한계로 몇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중복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재차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대형언어모델(LLM)의 트랜스포머 구조다. 트랜스포머는 순환이나 합성곱 없이 ‘자기-주의(self-attention)’만으로 문맥을 파악한다.¹¹⁾ 이 구조 덕분에 긴 문맥의 자료를 병렬적으로

10) 챗지피티의 작동 원리와 운용원칙 등 다양한 기술적 이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help.openai.com/en/articles/8868588-retrieval-augmented-generation-rag-and-semantic-search-for-gpts?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추론(inference)에 대해서는 다음의 아티클을 참고 할 수 있다. <https://medium.com/%40enolve.io/i-had-chat-gpt-tell-me-about-its-inner-workings-heres-what-i-learned-d5c0f211b7b5>,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11) 자기-주의는 문장 속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해 가중치(weight)를 주는 방법이다. 문맥 속 모든 단어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고 계산해

처리할 수 있다.¹²⁾ LLM은 이렇게 사전학습 과정을 거친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방대한 말뭉치에서 언어 패턴을 학습하고 이후 다양한 작업에 적용한다.¹³⁾ 둘째, 인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안 생성 및 지시 따르기이다. LLM은 추가 학습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인컨텍스트 러닝과 소수-샷/무샷(few-shot/zero-shot learning) 추론으로(필요시 예시 몇 개만 보고) 곧바로 답을 생성한다. 여기에 지시 튜닝(instruction tuning)과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을 더하면,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따르고, 유용성과 안전성이 향상된다. GPT-3는 소수-샷 성능의 규모 법칙을 보여줬고, GPT-4는 광범위한 벤치마크에서 인간 수준에 근접한 성과를 보였다는 공개 기술 보고가 있다.¹⁴⁾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습득할 수 있는 정보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질과 양의 정보 입력 및 학습에 따라 거의 모든 질문에 여러 정보들을 뒤섞은 답변을 막힘없이 제공한다. 이러한 답안 생성 기능에는 이야기 생성 능력 및 윤리적 상담도 포함한다.¹⁵⁾ 셋째,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기능이다. 트랜스포머는 처음부터 기계번역에서 돌파구를 열었고, 이후 텍스트-투-텍스트 패러다임(T5 등)으

중요한 단어에는 더 큰 비중을 주고, 덜 중요한 단어에는 작은 비중/무게를 준다.

12) 실제 생성 단계에서는 다음 토큰(token)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자동회귀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토큰은 LLM이 문장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를 자르는 최소 단위다. '단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형태소 단위, 음절 조합 등으로 잘리기도 하고 긴 단어가 여러 토큰으로 나뉘기도 한다.

13) Ashish Vaswani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arXiv:1706.03762v7 [cs.CL] (2 Aug, 2023), <https://arxiv.org/abs/1706.03762>.

14) Tom B. Brown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rXiv:2005.14165v4 [cs.CL] (22 Jul 2020), <https://arxiv.org/abs/2005.14165>.

15) Danica Dillion, Debanjan Mondal, Niket Tandon, and Kurt Gray, "AI Language Model Rivals Expert Ethicist in Perceived Moral Expertise," *Scientific Report* 15/1(2025): 4084, <https://doi.org/10.1038/s41598-025-86510-0>.

로 다양한 언어 작업을 하나의 틀에서 다루게 했다. 최근에는 200개 이상 언어 방향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평가한 NLLB가 다국어 번역의 스케일업과 책임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축적이 챗지피티의 실사용 번역 능력과 다국어 일반화의 기반을 이룬다.¹⁶⁾ 넷째, 새로운 관점의 제시다. 대규모 사전학습과 지시 튜닝을 거친 LLM은 대량 지식을 신속히 요약·재구성하고, 사고 과정 유도 등으로 복합 추론을 보조하며, 상이한 분야의 개념을 재맥락화해 아이디어 발산에 도움을 준다. 동시에 이 능력은 ‘창의성’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고, HELM 같은 포괄적 벤치마크는 유용성과 위험, 편향을 함께 계량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¹⁷⁾ 익숙하지 않은 분야뿐만이 아니라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습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에 기반한 수많은 관점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새로운 관점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특히 단독 또는 소수로 이루어진 연구팀의 경우 갖게 되는 아이디어의 고갈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들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오류와 환각현상(hallucination)이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LLM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에 의존하므로, 시스템 구조나 알고리즘의 결함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항

16) NLLB Team (Marta R. Costa-jussà et al.), “No Language Left Behind: Scaling Human-Centered Machine Translation,” arXiv:2207.04672 [cs.CL] (11 July, 2022), <https://arxiv.org/abs/2207.04672>.

17) Rishi Bommasani et al., “On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Foundation Models,” arXiv:2108.07258v3 [cs.LG] (12 Jul 2022), <https://arxiv.org/abs/2108.07258>; Jason Wei et al., “Chain-of-Thought Prompting Elicit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arXiv:2201.11903v6 [cs.CL] (10 Jan 2023), <https://arxiv.org/abs/2201.11903>. HELM은 Holistic Evaluation of Language Models 이다. 스탠퍼드 CRFM(Center for Research on Foundation Models)에서 만든 모델로, 단순한 정확도 뿐 아니라 유용성, 공정성, 편향, 안정성 등 여러 차원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LLM 평가 프레임워크다.

상 존재한다. 특히 환각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사실처럼 서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문헌·데이터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오류를 지적하더라도 모델이 이를 스스로 “거짓”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문가라면 쉽게 판별 가능하나, 비전문가 다수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이 언어 이해 및 생성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과 상관관계를 근거로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출처의 진위나 신뢰성을 직접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생성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¹⁸⁾ 둘째, 로컬리티와 특정성의 결여이다. 챗지피티의 응답은 대체로 보편적이고 일반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개인·집단·상황에 맞춘 세부적이고 맥락화된 답변 대신, 누구에게나 적용될 법한 무난한 서술이나 가치중립적 결론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실제 상황에서 결정의 권위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인공지능 개발의 ‘로컬’ 지향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AI는 지역적 특성(geographic locality)뿐 아니라 특정 과업(task-specific)에 맞춘 좁은 범위의 데이터와 규칙 기반으로 설계·학습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소의 정보 처리 연산 지원 시스템이나 한 지역 방언 번역기처럼, 설계 단계에서 로컬 환경과 목적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형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은 범용성을 목표로 하면서, 로컬 특수성이 극단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구체적 맥락에 뿌리내린 응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8) Joshua Maynez, Shashi Narayan, Bernd Bohnet, and Ryan McDonald “On Faithfulness and Factuality in Abstractive Summarizatio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020, 1906-1913. <https://doi.org/10.18653/v1/2020.emnlp-main.150>; Ziwei Ji et al. “Survey of Hallucination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ACM Computing Surveys* 55/12(2023): 1-38. <https://doi.org/10.1145/3571730>.

여러 특수 분야에서 맥락 의존적·지역 특수적 판단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¹⁹⁾

3. 윤리적 쟁점사안들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질문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속임수의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챗지피티의 약점인 자료의 오류와 환각현상은 사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²⁰⁾ 둘째, 유령노동자의 인권문제다. 챗지피티를 위해 고용된 수 많은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의 하청업체의 유령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찾기도 어렵지 않다.²¹⁾ 본 논문의 주제인 설교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을지 모르나, 챗지피티가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라는 점에서 챗지피티 사용자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유령 노동자가 하는 일은,

19) Arthur L. Samuel,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3/3(1959): 210-229. <https://doi.org/10.1147/rd.33.0210>; James Hendler, "Avoiding Another AI Winter." *IEEE Intelligent Systems* 23/2(2008): 2-4. <https://doi.org/10.1109/MIS.2008.31>; Gary Marcus, "Deep Learning: A Critical Appraisal," arXiv:1801.00631 [cs.AI] (2 January, 2018), <https://arxiv.org/abs/1801.00631>.

20) Yujie Sun et al., "AI Hallucin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of distorted inform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cont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mmunications* 11, 1278 (2024), <https://doi.org/10.1057/s41599-024-03811-x>; Faiz Surani and Daniel E. Ho, "AI on Trial: Legal Models Hallucinate in 1 out of 6 (or More) Benchmarking Queries," *Stanford HAI*, June 13, 2024, https://hai.stanford.edu/news/ai-trial-legal-models-hallucinate-1-out-6-or-more-benchmarking-queries?utm_source=chatgpt.com; Charles Rathkopf, "Hallucination, Reliability, and the Role of Generative AI in Science," arXiv:2504.08526v1 [cs.CY] 11 Apr 2025.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90749716_Hallucination_reliability_and_the_role_of_generative_AI_in_science.

21) https://time.com/6247678/openai-chatgpt-kenya-workers/?utm_source=chatgpt.com, 최종 접속일 2025년 7월 12일.

첫째, 인공지능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응용 알고리즘이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 부위 등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유해한 이미지를 구별하며, 둘째, 언어적 폭력과, 잔인한 언어적 표현을 구별하기 위해 전적인 노출을 자청할 수밖에 없다. 이 작업이 대부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참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이미지에 대한 분류 실수를 정정하는데, 여기서 오는 오류 또한 인간이 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넷째, 혐오 발언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언어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한 시간당 1~2달러 정도라고 한다.²²⁾

세 번째 윤리적 쟁점은 환경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의 샤오레이 렌(Shaolei Ren)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챗지피티와 5에서 50개 사이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마다 약 500밀리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한다.²³⁾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챗지피티의 데이터센터의 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의 사용이다. 냉각수 이전에 소모하는 전력량은 챗지피티3의 훈련과정에만, 1287MWh의 전기가 소비됐고, “배출된 탄소량 추정치는 502톤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탄소 배출량(11.6톤)의 43배”라고 한다.²⁴⁾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및 표절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도 조명한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챗지피티는 온라인상에

22) https://time.com/6275995/chatgpt-facebook-african-workers-union/?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1일.

23) Pengfei Li, Jianyi Yang, Mohammad A. Islam, and Shaolei Ren, “Making AI Less ‘Thirsty’: Uncovering and Addressing the Secret Water Footprint of AI Models,” arXiv:2304.03271 [cs.LG] (26 Mar, 2025), <https://arxiv.org/abs/2304.03271>.

24) 곽노필,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 ... 챗GPT의 불편한 진실”, 최종 접속일 2024년 6월 30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090180.html>.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천 자료를 만든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챗지피티의 접근을 인지하게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도용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물들을 사용하는 챗지피티 이용자들은 당연히 표절의 문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III. 설교에 대한 챗지피티의 활용

이러한,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노동의 전문성과 윤리적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 챗지피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닌, 어떻게 사용해야 할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된 경험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글만도 수 백개가 넘는다. 뉴욕 이스트 햄튼 지역의 랍비 조슈아 프랭클린(Joshua Franklin)은 일찌감치 챗지피티를 사용해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자신의 회중에게 설교한 후 이것을 밝히기도 했다.²⁵⁾ 독일 바이에른 주의 성바울교회에서는 40여분간 챗지피티에 의해 만들어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엔나 대학교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짐머라인(Jonas Simmerlein)에 의해 기획된, 예전이 진행되기도 했다.²⁶⁾ 이 행사의 진행은 남자의 모습을 한 아바타 둘, 여자의 모습을 한 아바타 둘, 총 네 개의 아바타가 화면에 나타나 찬양, 설교, 그리고 기도를 이끌었다. 설교의 내용 중에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여느 설교와 다르지 않은 긍정적인

25) https://www.businessinsider.com/rabbi-chat-gpt-ai-sermon-deathly-afraid-2023-2?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4년 8월 1일.

26) <https://newsroom.ap.org/editorial-photos-videos/detail?itemid=f5ee7ebdc8ff4cb6bc0752dbc7db4163&mediatype=video>,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일.

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챗지피티가 만들어낸 흑인 남성의 모습을 한 아바타는 시종일관 무표정했고 설교를 전하는 음성은 일관되게 단조로웠다. 개인에 따른 주관적 차이는 있겠지만 설교자의 마음이 전해질 통로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의 여러 목회 연구소 또는 설교 연구원 등의 설문 조사를 통해 개별 목회자들의 여러 직간접적인 챗지피티 사용과 그로인한 경험을 통해서 챗지피티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목회자 또는 설교자를 통해 경험하는 감성과 영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여느 기술처럼 목회자들과 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고 있다.

1. 설교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

목회자들은 설교를 위해 이미 주석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챗지피티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한 문장형태로 빠르게 제공한다. 그러니 챗지피티 또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설교에 국한하여 목회자의 챗지피티 사용에 따른 윤리적인 요소들과 연관된 쟁점사안들은 다양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겠기에 앞서 살펴본 이 기술의 특징을 기반으로 주요 논의할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짚어보려 한다.

1) 속임수와 신뢰성

설교에서 진정성은 중요하며 기술의 사용은 설교하는 목회자와 청중간의 진정한 연결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²⁷⁾ 특히 사용자가 설교 준비를

27) Ryan Hayden, "Sermon Preparation in Seconds," <https://world.hey.com/ryan-hayden/sermon-preparation-in-seconds-ethical-guidelines-for-using-ai-in-sermon->

하면서 챗지피티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상호 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챗지피티가 생성하는 모든 결과물이 자신의 좋은 질문 때문에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는 속임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기기만이 발생하고 뒤이어 표절로 연결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도 목회자의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²⁸⁾ 챗지피티와 같은 챗봇이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할 경우 이들 정보는 수집 가능한 정보지만, 그 정보를 만들어 낸 원저자 또는 단체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모아진 개인 정보와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는지 그 출처와 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사용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자료라도 온라인상에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에 대한 사적 침해 등에 있어서 윤리적 민감성이 둔해지고 이는 목회자의 개인 도덕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2) 신학적 정확성

챗지피티를 비롯한 챗봇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²⁹⁾ 당연히 신학과 기독교윤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챗지피티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받을 수준은 아니다.³⁰⁾ 방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

preparation-4c70399c?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28) Andrew McGowan, "Preaching, Plagiarism, and AI," *Reflections* (Spring, 2024), https://reflections.yale.edu/article/ghost-machine-ethics-ai/preaching-plagiarism-and-ai?utm_source=chatgpt.com.

29) https://exponential.org/pros-and-cons-of-using-ai-for-sermon-writing-18-issues-to-consider/?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0일.

30) Gregory E. Sterling, "From the Dean's Desk," *Reflections* (Spring 2024), <https://>

은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빈신학의 개혁주의 전통 목회자를 웨슬리신학의 방식의 해석으로 인도한다든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적 해석으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이끌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다른 신학자들의 성경해석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신학적 해석을 위한 당시의 맥락적 민감성과 미묘한 이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학적 해석을 접한다고 보기 힘들다.

3) 공동체 내 권위의 감소 및 공동체의 분열

이러한 신학적 불안정성은 기존 지역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특징 및 전통과 불일치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영적권위를 감소시키며 공동체와 목회자의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³¹⁾ 챗지피티에게 맡겨버린 성경 해석은 잠재적으로 지역교회 또는 교단 소속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신학적 오해, 오류, 그로 인한 소통의 문제와 불신,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설교자가 공동체의 언어가 아닌 챗봇을 통한 보편적, 일반적인, 공동체와 동떨어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의존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상호 작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동 예배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이 그 설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사역에 대한 무력감,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 능력 상실 등의 위험을 가진다.

reflections.yale.edu/article/ghost-machine-ethics-ai/deans-desk.

31) Ed Stetzer and Corey Alderin, "The Ethics of AI in Sermon Writing," https://sermonshots.com/blog/the-ethics-of-ai-in-sermon-writing/?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2일.

4) 신임 목회자의 성장 방해

젊은, 또는 자신만의 설교 준비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 챗지피티의 사용은 그들의 목회, 특히 설교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훌륭한 목회자이자 설교가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³²⁾ 앞선 설교학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챗봇을 사용해본 결과 대부분 자신이 원래 마련해 놓은 루틴 또는 절차로 돌아가거나, 그 과정의 작은 일부로 챗봇을 끼워 넣고 있다. 챗지피티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편견에 가까우리만큼 쉬운 해당 본문에 대한 이해, 세상에 널리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챗지피티를 설교 준비과정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간혹 다른 본문들, 또는 신학적 사안들과의 연결성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스스로 외로운 준비과정을 겪기 때문에, 가끔 다른 시야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챗봇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성경 본문과 씨름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석의 과정을 통과하여 쓰여진 설교문의 깊이와 울림을, 적어도 아직까지는 챗지피티가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언어와 문화

챗봇은 특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³⁴⁾

32) Andrew Noble, "Your Sermon Doesn't Need AI," <https://ca.thegospelcoalition.org/article/your-sermon-doesnt-need-ai/>.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2일.

33) Frida Mannerfelt and Rikard Roittot, "Preaching with AI: An Exploration of preachers' interac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 in Sermon Preparation," *Practical Theology*, 18/2(2025), 127-138. <https://doi.org/10.1080/1756073X.2025.2468059>.

34) Vinodkumar Prabhakaran, Rida Qadri, and Ben Hutchinson, "Cultural incongruenc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Xiv:2211.13069 [cs.CY] (19 Nov, 2022),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세상의 문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야기되는 문화적 민감성이 종종 기술 트렌드나 대중문화, 혹은 주목받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챗지피티 역시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자료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가 지닌 고유한 삶의 맥락과 인간 관계, 역사적 경험이 엉겨 있는 ‘삶의 자리’,³⁵⁾ 즉,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실체로서의 지역성(locality)의 특징을 목회자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파악하거나 반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³⁶⁾

IV. 신학적 설교

앞서 살펴본 ‘챗지피티와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교에 대한 챗지피티의 활용’ 등을 토대로 신학적 설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할 수 있다.

1. 보편적 대안

목회자들이 화면을 통해 챗지피티를 통해 설교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종종 인공지능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용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나

<https://arxiv.org/pdf/2211.13069>.

35) 김석수,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서울: 해안, 2010), 35.

36) Joyzy Pius Egunjobi, “The Misuse of AI-Generated Content in Academic and Religious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Scientific Innovation*, vol. XII, issue XV (May, 2025), 871-879.

는”이라고 챗지피티가 글을 생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응답이나 정보에 합리적인 답을 주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관계를 통해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기술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인공지능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나태함을 지속시키는 것을 너머 그것을 더 지지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대학교 글쓰기 수업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학생들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제안한 단어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다. 영어로 작성하는 이메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안하는 문장과 구절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공적인 기술 혁명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또 본 저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글을 쓰기 위한 고뇌와 고통을 앓아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회의적인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의 소통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설교도 당연히 이것에 포함된다. 학업과 설교 등의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도구 등등 많은 기술들이 설교자들로 하여금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회중 또는 청중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제국의 도로망을 사용했고, 청중들이 화자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고안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강당이나 야외 극장에서 설교했다.

수십년간 설교를 해온 목회자나 설교학자들은 실제로 기술적인 발달과 변화가 그들의 설교 준비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을 인정한다.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등의 기술들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목회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준수하고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설교자가 성령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지 않는 설교는 더 이상 설교가 아니다. 목회자들이 주의할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는 행위 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습관이다.

챗지피티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더 설교자는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유혹받고 있다. 주요 이유들 중 하나는 사역의 과도한 업무 때문이다. 그러나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설교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정보전달에 있지 않다. 설교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진 후에야 찾아오는 성도의 전인적 변화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논할 때 설교가들과 신학자들은 영적인 요소의 발견 여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의 빛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삶 의 맥락 안에서 얻게 되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곱씹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 설교자의 이 경험을 따라잡을 수 없다. 남겨진 텍스트를 저장하고 축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말씀과의 씨름과 곱씹음을 통한 새로운 영적 의미와 해석의 생성은 인간 설교자의 것이다. 물론 챗지피티가 흉내내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안에서 참된 인간됨의 발견에 대해 답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로써 전할 수 있다. 그래

서 기계적으로 생성해내는 문자라 하더라도 설교자의 인간성은 통로가 되어 회중으로 하여금 삶의 고뇌와 고통을 뚫고 도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죄인이 감화감동 받게 쓰임 받는 것이다.

2. 신학과 언어

많은 신학 자료를 가지고 있는 챗지피티의 특성상 또 다른 의미에서 신학 무용론 또는 신학교육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바둑처럼 신학식 대결을 해야 할까? 그 승부가 마치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처럼 신학자가 패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신학무용론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세돌이 의외의 수를 놓았을 때 그 대국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신학과 설교도 그런 의외성, 즉흥성,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챗지피티에 대한 설명과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뚜렷하고 명확한 언어, 특정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신학에 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의 특이점이 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현재와 시시각각 변하는 미래의 시간을 챗지피티가 대신 살 수는 없다.

결국 설교와 신학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핵심은, 챗지피티 같은 LLM이 가장 탁월하게 다루는 바로 그 언어일지 모른다. 위대한 20세기 기독교 철학자인 엘리자베트 안스콤(Elizabeth Anscombe)과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지적하듯, 현대 문화는 도덕적 언어를 의무·당위의 어휘로 사용하면서도 그 언어가 의미를 갖게 해주는 신앙·전통·목적론적 관점을 상실했다.³⁷⁾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은 우리의 근

37) G. E. M. Anscombe,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124(1958): 1-19; Eric Wiland, "Gertrude Elizabeth Margaret Anscombe," *Stanford Encyclopedia of*

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도덕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비판하며, 도덕 판단은 무엇보다 ‘보는 것’의 훈련과 언어의 두께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³⁸⁾ 리처드 플레밍(Richard Fleming)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복잡한 체계 안에 놓여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³⁹⁾ 즉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내가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는 것은 사실 종종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의도한 바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LLM의 유창함은 설교 언어의 형식을 쉽게 재현하지만, 그 언어에 생명과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전례·공동체 실천·덕의 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곧, 설교 언어의 신학적 두께를 어떻게 구별·검증·배치할 것인가는, LLM 활용의 신학적·윤리적 쟁점을 관통하는 질문이 된다.

설교를 포함한 기독교적 글쓰기는 선대가 남긴 언어를 빌려 자기 언어를 세우는 훈련이다. 우리는 전통의 언어와 문화 안에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사용해 온 공동체의 의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⁴⁰⁾ LLM 등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더라도, 설교자·

Philosophy (2009/2016), <https://plato.stanford.edu/entries/anscombe/>;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박영민 역, 『덕의 상실: 도덕 이론에 대한 탐구』 (서울: 비아, 2015).

38) Iris Murdoch, *The Sovereignty of Good* (London: Routledge, 1970); Iris Murdoch, “Against Dryness,” *Encounter* (January 1961): 16-20.

39) Richard Fleming, *First Word Philosophy: Wittgenstein-Austin-Cavell Writings on Ordinary Language Philosophy*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2004), 122.

40) Fleming, *First Word Philosophy*, 127.

신학자의 고유한 강점은 신학 자체와 신학적 언어를 명민하고 세밀하게 단련하는 데 있다. 성실성과 투명성 같은 인격적 덕은 물론, 설교 언어의 책임은 타자—특히 챗봇—에게 위임될 수 없다. 자동화는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주체적 분별과 교회 전통에 뿌리내린 해석이 중심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설교는 더 신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이는 교리 나열을 뜻하지 않는다. 교리는 설교에 스며 있어야 하되, 설교는 그 나름의 언어적 형식과 수행성을 살려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제시한 신학적·내러티브 중심·교회 지향적 설교를 규범으로 제안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신학자이자 기독교윤리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백 편이 넘는 설교를 출판해왔다.⁴¹⁾ 하우어워스의 설교는 즉흥적으로 예기치 않게 등장하는 삶의 현실과 닮은 즉흥적(ad hoc) 변증학의 형태를 취한다. 특히 하우어워스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갖는 것이지 요점을 삼대지, 사대지 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에 기독교인들이 잘 협력하고 일치하도록 조언이나 팁을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준 선물이며, 그로써 복음에 의해 재해석되고 이야기되는 기독교인의 존재를 깨닫고, 그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악으로 점철된 역사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못 박힌, 그러나 세상을 이긴 메시아의 구속의 이야기라는 복음으로 결정됨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⁴²⁾

41) 가장 최근에 출간된 하우어워스의 설교 모음집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Stanley Hauerwas, *Jesus Changes Everything: A New World Made Possible*, ed. Charles E. Moore (New York: Plough, 2025). 이 책에 실린 총 25편의 설교는 모두 이미 여러 책들을 통해 출판된 설교들이다. 하지만, 주제에 맞게 선별되고 하우어워스가 다시 교정을 본 원고들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많은 설교학 교재들은 설교자들이 단 하나의 본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⁴³⁾ 하지만 하우어워스의 설교들은 정기적으로 매일의 성구(lectionary)와 연결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론적으로 형성된 하우어워스의 상상력이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어진 성경 본문들의 연결을 자유롭게 넘다들게 허용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사용하신 예수의 해석방법을 따라서, 하우어워스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이해한다.⁴⁴⁾ 다양한 성구(lections)가 긴밀히 연결되는 중심에 예수가 있다. 이브라임 레드너(Ephraim Radner)는 성경의 유비적 읽기(figural reading)의 중요한 원칙 및 핵심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우어워스의 독특한 성경 해석과 설교적 노력, 또는 실천은 교회의 시작부터 있어왔던 유비적 성경해석의 회복을 통한,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설교자가 주일 설교단에 오를 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만을 의지하여(에베소서 6:17) 지난 한 주 동안 그들의 회중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배한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과 거짓말들과의 전투를 치르러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워스의 요점이 없어 보이는

42) Stanley Hauerwas, *Without Apology: Sermons for Christ's Church* (New York: Seabury, 2013), xvii.

43)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6), 80-82; Han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1), 54;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213-20; Paul Scott Wilson, *Thr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9), 36-37.

44) Stanley Hauerwas, *Unleashing the Scripture: Freeing the Bible from Captivity to America* (Nashville: Abingdon, 1993), 47-62.

45) Ephraim Radner, *Time and the Word: Figural Reading of the Christian Scriptures* (Grand Rapids: Eerdmans, 2016), 280.

설교는 대신 논쟁적이다.⁴⁶⁾ 그 논쟁의 대상과 출발점은 믿음이며, 오직 하나의 신학적, 윤리적 원칙에 근거한다.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다(Jesus Christ is Lord)”라는 것이다. 이 명제를 다른 합리성에 그 적법성, 적절성을 맡기는 것은 신앙고백의 문법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우어워스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예수가 주님이다.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란 말은 바로 이 신앙의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문법에 충실한 예가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본회퍼와 비슷하게,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언어는 그 무게와 힘을 [세상에서 정해진 개념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시에 의해 얻는다”라고 이해한다.⁴⁷⁾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득의 가장 진실된 형태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설교학의 권위자인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설교를 위해 간단한 규칙을 제안한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경험되어야만 한다.”⁴⁸⁾ 하우어워스의 설교 대부분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성구일람표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언어적 관계와 위치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법칙 아래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이끄는 것 등을 강조한다. 폴 윌슨도, 만일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설교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관해 믿음으로 담대한 주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하우어워스의 글과 설교는 그러한 주장으로 가득하다. 그는 성인들과 증인들, 그들의

46) Hauerwas, *Without Apology*, xviii-xix.

47)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ed. John W. De Gruchy, trans. Best, Isabel et al., vol. 8, *Dietrich Bonhoeffer Works* (Minneapolis: Fortress, 2010), 504.

48)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25.

49)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24.

공동체의 삶을 조명하며 성경의 이야기 된 세상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법한 세상임을 보여준다. 좋은 신학적, 유비적 주해는, 별개의 성경 본문들 간의 상호 연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의 끝없는 이야기 안에서 쓰여지는지 담대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우어워스에게 설교는 성경의 본문으로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창자 도래할 천국의 복음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현재에 보이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챗지피티의 접근이 불가능한 미래의 영역이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챗지피티와 설교의 연결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형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 또는 챗봇은 그 작용원리에 따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하여 통계적으로 높은 형태의 텍스트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작성한 것과 유사한 또는 더 탁월해 보이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별다른 시간적 지연 없이 여러 과제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챗지피티의 기술적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이 보편적이며 기능적인 언어 사용 및 생성에는 강한 반면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언어 사용이 필요한 신학과 윤리적 해석에서는 정보의 오류 또는 보편적 정보만을 생성해 냄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설교를 소개하며 짧지만 적용 가능한 대안 또는 대안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인 영적, 신학적, 언어적 민감성에 대해서 다뤘다. 챗지피티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은 설교 준비에 있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삶의 현장에서 설교자가 기도하며 고민하여 도출해 낸 삶의 반영으로서의 설교가 여전히 공동체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챗지피티와 같은 세속 기업이 개발한 도구는 특정한 신학적 언어를 생성하는 데 본질적 한계를 지니며, 특히 구체적 공동체의 삶의 맥락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적 맥락 속에 뿌리내린 공동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신학적 언어로 창조하는 설교의 중요성을, 본 논문은 강조한다.

모든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처럼 보이고, 이 기술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처럼 논의되는 지금이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될 기회일 수 있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시간, 인류세의 시간을 아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시간임을 인식한다면, ‘시간은 우리편이다’, ‘시간문제다’라는 말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할 말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챗지피티라는 거대 주제와 설교 윤리라는 또 다른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면서,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과학적 담론들과 추론의 연결을 위한 논리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특히 하우어워스 설교론 논의는 인공지능의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질 부분이 있었지만 설교자의 윤리와 도덕성 문제와 함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었다. 또한 챗지피티의 철학적 담론(특히 인식론), 운용 과정에 수반되는 유령노동자의 인권, 환경문제 등 중요한 철학·윤리적 쟁점들은 범위 밖으로 남았다. 이러한 사안들은 향후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분별하는 한국교회의 실천적 방안.” 『신학과 실천』 69(2020), 743-774.
- _____. “AI vs 목회자: AI가 가져올 목회의 변화와 대응 전략 [AI시대, 교회의 역할과 가능성].” 최종접속일 2024년 6월 30일. https://youtu.be/_ZB2WqXzkjk?si=W8NeMAZyu6_KXwnW.
- 김진영. “목회자 79% ‘설교 준비에 챗GPT 사용될 것.’” 『기독일보』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3962?utm_source=chatgpt.com.
- 김석수.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서울: 해안, 2010.
- 곽노필.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 ... 챗GPT의 불편한 진실.” 최종 접속일 2024년 6월 30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090180.html>.
-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8권(2023), 146-196.
- 우석영. “인류세의 비인간 돌봄.” 우석영 편. 『기후 돌봄: 거친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가는 법』. 서울: 산현글방, 2024.
-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2023), 233-257.
- 장요한. “인공지능, 결코 하나님 부르신 설교자 대체할 수 없다 - 박현신 교수,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6회 정기학술대회서 발제.” 『기독일보』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0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5353?utm_source=chatgpt.com.
- 조용훈. “4차산업혁명기 윤리적 책임과 특성에 관한 기독교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45-80.
- 최평순 외. 『인류세: 인간의 시대』. 서울: 해나무, 2020.
- 황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설교 윤리와 활용에 대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검토.”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76-105.
- Anscombe,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no. 124 (1958): 1-19.

- Bommasani, Rishi, et al. "On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Foundation Models." arXiv:2108.07258v3 [cs.LG] (12 Jul 2022). <https://arxiv.org/abs/2108.07258>.
- Bonhoeffer, Dietrich.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ed. John W. De Gruchy, trans. Best, Isabel et al., vol. 8, *Dietrich Bonhoeffer Works*. Minneapolis: Fortress, 2010.
- Brown, Tom B.,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rXiv:2005.14165v4 [cs.CL] (22 Jul 2020). <https://arxiv.org/abs/2005.14165>.
- Costa-jussà, Marta R., et al. (NLLB Team). "No Language Left Behind: Scaling Human-Centered Machine Translation." arXiv:2207.04672 [cs.CL] (11 July, 2022). <https://arxiv.org/abs/2207.04672>.
- Dillion, Danica, Debanjan Mondal, Niket Tandon, and Kurt Gray. "AI Language Model Rivals Expert Ethicist in Perceived Moral Expertise." *Scientific Reports* 15, no. 1 (2025): 4084. <https://doi.org/10.1038/s41598-025-86510-0>.
- Egunjobi, Joyzy Pius. "The Misuse of AI-Generated Content in Academic and Religious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Scientific Innovation* 12 Issue XV (May, 2025), 871-879.
- Ferraris, Andrea Filippo, Davide Audrito, Luigi Di Cargo, and Cristina Poncibo. "The Architecture of Language: Understanding the Mechanics Behind LLMs." *Cambridge Forum on AI: Law and Governance* no. 1 (2025): 1-19.
- Fleming, Richard. *First Word Philosophy: Wittgenstein-Austin-Cavell Writings on Ordinary Language Philosophy*.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2004.
- Hauerwas, Stanley. *Jesus Changes Everything: A New World Made Possible*. Edited by Charles E. Moore. New York: Plough, 2025.
- _____. *Without Apology: Sermons for Christ's Church* (New York: Seabury, 2013).
- _____. *Unleashing the Scripture: Freeing the Bible from Captivity to America* Nashville: Abingdon, 1993.
- Hayden, Ryan. "Sermon Preparation in Seconds." <https://world.hey.com/>

ryan.hayden/sermon-preparation-in-seconds-ethical-guidelines-for-using-ai-in-sermon-preparation-4c70399c?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4일.

Hendler, James. "Avoiding Another AI Winter." *IEEE Intelligent Systems* 23, no. 2 (2008): 2-4. <https://doi.org/10.1109/MIS.2008.31>.

Jarrige, François and Thomas Le Roux. *Une histoire des pollutions à P'âge industriel*. Translated by Janice Egan and Michael Egan. Massachusetts: MIT Press, 2020. 한국어 번역: 조미현 역, 『지구 오염의 역사: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 서울: 에코리브르, 2021.

Ji, Ziwei, et al. "Survey of Hallucination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ACM Computing Surveys* 55, no. 12 (2023): 1-38. <https://doi.org/10.1145/3571730>.

Li, Pengfei, Jianyi Yang, Mohammad A. Islam, and Shaolei Ren, "Making AI Less 'Thirsty': Uncovering and Addressing the Secret Water Footprint of AI Models." arXiv:2304.03271 [cs.LG] (26 Mar, 2025). <https://arxiv.org/abs/2304.03271>.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6.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한국어 번역: 박영민 역, 『덕의 상실: 도덕 이론에 대한 탐구』. 서울: 비아, 2015.

Mannerfelt, Frida and Rikard Roittot, "Preaching with AI: An Exploration of preachers' interac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 in Sermon Preparation." *Practical Theology*. Vol. 18/2(2025), 127-138. <https://doi.org/10.1080/1756073X.2025.2468059>.

Marcus, Gary. "Deep Learning: A Critical Appraisal." arXiv:1801.00631 [cs.AI] (2 January, 2018). <https://arxiv.org/abs/1801.00631>.

Maynez, Joshua, Shashi Narayan, Bernd Bohnet, and Ryan McDonald. "On Faithfulness and Factuality in Abstractive Summarizatio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1906-1919.

McGowan, Andrew. "Preaching, Plagiarism, and AI." *Reflections*. Spring, 2024.

https://reflections.yale.edu/article/ghost-machine-ethics-ai/preaching-plagiarism-and-ai?utm_source=chatgpt.com.

Mugleston, Jennifer, Vuong Hung Truong, Cindy Kuang, Lungile Sibiyi, and Jihwan Myung. "Epistemology in the Age of Large Language Models." *Knowledge* 5, no. 3 (2025): 1-19. <https://doi.org/10.3390/knowledge5010003>.

Murdoch, Iris. *The Sovereignty of Good*. London: Routledge, 1970.

_____. "Against Dryness." *Encounter* (January 1961): 16-20.

Noble, Andrew. "Your Sermon Doesn't Need AI," <https://ca.thegospelcoalition.org/article/your-sermon-doesnt-need-ai/>.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2일.

Plato. *Cratylus*, 401d-402a. <https://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1999.01.0172%3Atext%3DCrat.%3Apage%3D401>.

Prabhakaran, Vinodkumar, Rida Qadri, and Ben Hutchinson, "Cultural Incongruenc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Xiv:2211.13069 [cs.CY] (19 Nov, 2022). <https://arxiv.org/pdf/2211.13069>.

Radner, Ephraim. *Time and the Word: Figural Reading of the Christian Scriptures*. Grand Rapids: Eerdmans, 2016.

Rathkopf, Charles. "Hallucination, Reliability, and the Role of Generative AI in Science." arXiv:2504.08526 [cs.CY] (11 April, 2025). <https://doi.org/10.48550/arXiv.2504.08526>.

Robbinson, Han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1.

Samuel, Arthur L.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3, no. 3 (1959): 210-229. <https://doi.org/10.1147/rd.33.0210>.

Sterling, Gregory E. "From the Dean's Desk." *Reflections*. Spring 2024, <https://reflections.yale.edu/article/ghost-machine-ethics-ai/deans-desk>.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2일.

Stetzer, Ed and Corey Alderin. "The Ethics of AI in Sermon Writing." https://sermonshots.com/blog/the-ethics-of-ai-in-sermon-writing/?utm_source=chatgpt.com. 최종접속일, 2025년 7월 12일.

- Stott, John.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 Sun, Ujie, Dongfang Sheng, Zihan Zhou, and Yifei Wu. "AI Hallucin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of Distorted Inform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Cont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 (2024): 1278. <https://doi.org/10.1057/s41599-024-03811-x>.
- Surani, Faiz, and Daniel E. Ho. "AI on Trial: Legal Models Hallucinate in 1 out of 6 (or More) Benchmarking Queries." *Stanford HAI*. June 13, 2024. https://hai.stanford.edu/news/ai-trial-legal-models-hallucinate-1-out-of-6-or-more-benchmarking-queries?utm_source=chatgpt.com.
- Varon, Joana, Sasha Costanza-Chock, and Timnit Gebru. "Fostering a Federated AI Commons Ecosystem." *Coding Rights*. https://codingrights.org/docs/Federated_AI_Commons_ecosystem_T20Policybriefing.pdf.
- Varon, Joana, Sasha Costanza Chock, Mariana Tamari, Berhan Taye, and Vanessa Koetz. *AI Commons: Nourishing Alternatives to Big Tech Monoculture*. Rio de Janeiro: Coding Rights, 2024. <https://codingrights.org/docs/AICommons.pdf>.
-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 (2017). arXiv:1706.03762v7 [cs.CL] (2 Aug, 2023). <https://arxiv.org/abs/1706.03762>.
- Wei, Jason, et al. "Chain-of-Thought Prompting Elicit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arXiv:2201.11903v6 [cs.CL] (10 Jan 2023). <https://arxiv.org/abs/2201.11903>.
- Wilson, Paul Scott. *Thr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9.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설교 준비와 전달에 있어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챗지피티의 작동 방식, 강점과 한계,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로봇 도구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문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챗봇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논문은 신실하게 준비된 설교에는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인간적이며 영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공동체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얻는 교감, 그리고 미묘한 신학적 언어의 정확한 사용 등이다. 이러한 예로써, 본 논문은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설교'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교회의 삶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과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가 설교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지만, 의미 있는 설교 준비와 전달에 필요한 영적 분별력, 맥락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 통찰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설교자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성경 해석자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우선시하면서 인공지능 도구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주제어: 챗지피티, 인공지능, 인류세, 설교 윤리, 스탠리 하우어워스
